

노인의 우울과 가족관계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연구

윤숙자
경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Impact of Dep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 on Problem Drinking among Older Adults

Suk-Ja Yoon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yeo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음주문제의 정도와 우울과 가족관계 요인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2015년에 발표된 2014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비롯한 9개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전국적인 자료이다. 연구대상의 음주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음주문제의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은 음주문제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음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과 가족관계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울이 가족관계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노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노인의 건강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노인, 문제음주, 우울, 가족관계, 삶의 질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that the degree of alcohol use and the factor of family relationship have on alcohol related problem with elderly people over 65 years old. The study utilized the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14 published in 2015, which is annually conducted nationwide study. AUDIT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cale to assess the drinking problem in the study was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Presenting some discussion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looking at a cross-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in drinking problems, elderly men and elderly women showed different degrees of alcohol problems. Second, looking a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whether a drinking problem, younger age showed a serious drinking problem. Third, looking at the effect that dep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 have on alcohol problem, depression appeared to have relatively more serious effect than the family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above find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for healthy aging are important factors of the quality of life so a preventive approach to maintain healthy habits is considered to be essential.

Key Words : Older Adults, Problem Drinking, Depression, Family Relationship, Quality of life

Received 29 February 2016, Revised 30 March 2016
Accepted 20 April 2016, Published 28 April 2016
Corresponding Author: Suk-Ja Yoon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yeongju University)
Email: by-ppp@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노인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신체적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므로 음주로 인한 건강의 피해는 더욱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노인의 과도한 음주 증가 현상은 공공의 보건 문제이기도 하며(Grant·Dawson·Stinson, 2004),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증가시키는 위험 요소를 수반하고 있다. 음주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의 감퇴를 비롯한 치매 등의 정신적 기능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문제음주는 자살과 같은 심각한 2차적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윤명숙·김성혜·채완순, 2010)[1]. 또한 노인의 경우 문제음주가 단순히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차적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노인복지 정책 및 실천현장에서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권중돈·김동기·김기수·박수진, 2012)[2].

문제음주는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Straus(1983)는 술을 적당한 정도로 통제하여 마시지 못하여 알코올을 남용하게 되거나, 알코올 의존에 이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해 자신 또는 주변의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유채영(2000)은 문제음주를 '의료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법적, 경제적, 영적 기능 및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다[3]. 권현수(2009)는 문제음주란 과다한 양의 음주와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포괄적 범주로 문제음주의 개념을 정의하여 사용하였다[4].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 1차년도 보고서(보건복지부, 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문제음주율은 42.7%였고 40대는 45.8%, 60대는 35.9%, 70대 이상은 22.0%인 것으로 나이가 들면서 문제음주율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알콜의존 정도를 측정하는 AUDIT점수가 20점 이상인 고도 위험군에서는 전체 평균이 7.1%인데 비해 60대가 8.4%로 오히려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노인 문제음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특히 최근 노인우울, 자살 등의 급속한 증가가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노인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노인의 문제음주는 노인 우울과 자살의 선행요인으로서 그 심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의 문제음주는 음주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행위이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인들의 음주문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외국의 경우에도 노인 음주문제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집단의 알코올 문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나, 일반 지역사회 노인집단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의 3~15%의 알코올중독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알코올남용은 노화와 연관된 스트레스에 대한 주요반응 중의 하나로서 인식되어 왔다(Dupree et al, 1984). 이처럼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의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는 음주습관은 청·장년층들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그동안 간과되거나 문제 특성이 상당히 축소된 경향이 있다.

노인들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사유들로서 노년의 퇴직, 사별, 질병, 고립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들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기간이라는 점, 또한 노인들의 알코올 대사능력의 감소로 동반되는 의학적 문제와 함께 사고의 위험성, 부작용, 그리고 명백한 독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노년기의 음주는 성인에 비해 각종 노인성 신체적 질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신경손상으로 인한 동작 및 인지능의 감퇴, 치매 등의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부양부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며(Osgood et al., 1995; 이운로, 2000에서 재인용[5]). 노인의 문제음주는 청·장년층의 문제음주와 음주빈도, 유병률 등에서도 구별되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음주빈도 역시 음주량과 더불어 음주행동에 대한 중요한 평가 지표로서 노인의 경우 성인에 비해 양은 적지만 매일 지속적으로 마시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알코올의 만성적 사용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은 노년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서희숙 외, 2004)[6].

노인의 알코올 남용의 유병률 관련 특성은 연령 증가에 따라 알코올 남용의 양상이 점차 감소되며, 초기에 비해 후기 노년층의 음주율이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문제음주와 관련해서 성별에 따른 특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남궁기 외(1989)에 의하면 남자의 주정중독 유병률이 41.5%인데 비해, 여성에서는 6.6%로 거의 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7]. 이후 연구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알코올중독자(박지영, 1998)[8] 및 문제 음주자(신승철 외, 1990; 서희숙 외, 2004; 정찬승, 2004)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음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음주량 및 문제 음주자가 적어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는 노화로 인한 신체장애 또는 신체 대사의 저하로 인해 음주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나타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Mishara and Kastenbaum, 1980; 신승철 외, 1990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노인의 문제음주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먼저 가족관련 변인과 문제음주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안정선 등 2003; 정경수, 2006; 이승연 2010)[9]에서 문제음주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비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가족관계가 노인의 문제음주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의 가족체계 변화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적관계망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노년기에 가까이 갈수록 사회적 지지의 대부분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획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Cobb, 1976; 서희숙, 1993에서 재인용).

노년기에는 공식적 사회관계망이 축소되기 때문에 비공식적 관계망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비공식적 관계망 중에서도 가족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이며, 가족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중돈, 2012)[10]. 그러므로 가족은 노인의 문제음주를 줄이거나 문제음주로 진행되어 재활이 필요할 시에도 중요한 자원으로서 작용하게 된다(권중돈, 2012). 특히 사회관계망의 축소로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노년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박지영, 1998). 즉 노인에게 있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중요한 가족관계로서 이들이 노후의 삶에 어떻게 기능하고 지지하느냐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지적인 가족은 스트레스에 의한 알코올사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Brennan and Moos, 1990에서 재인용).

또한, 노인들은 우울,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달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윤로, 2000). 이러한 우울은 일반적으로 노인의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년기 고독감은 우울증, 무망감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권중돈 등, 2012). 이러한 심리적 불안상태는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우울은 노인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명

숙, 2007; 장인순, 2008; 권현수, 2009; 박재홍·정지홍, 2010; 권중돈 등 2012)[11, 12, 13]. 특히 윤명숙(2007)은 우울, 불안 등이 문제음주를 야기 시킨다고 하였다. 노인의 대부분이 노년기에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노인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인 우울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Brennan and Moos, 1996; 이효정, 2006)[14]. 국내 연구(양옥경, 1997)에서 노인들의 30%가 우울 증세를 보였고 이들은 심각한 문제음주 성향을 보였으며 자신의 삶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루일과 및 여가활동 영역에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15]. 노인에게 있어 부정적 정서 중 하나인 우울은 노년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로서 음주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음주문제의 정도와 우울과 가족관계 요인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성별에 따른 노인의 음주문제정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노인의 음주문제는 우울과 가족관계 요인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3. 우울과 가족관계는 요인은 노인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2015년에 발표된 2014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비롯한 9개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전국적인 자료이다. 이 패널은 총7,000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144,469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4,9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음주문제

연구대상의 음주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의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척도를 사용하였다. AUDIT척도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감도와 특이성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기보고용 알코올남용 및 의존평가 척도이다. 이 척도는 지난 1년간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알코올 의존증세, 음주와 관련된 문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되고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위험하고 해로운 음주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AUDIT척도의 신뢰도는 .829로 나타났다. AUDIT을 점수별로 분류하여 음주문제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 8점에서 15점 사이 위험한 음주를 줄이기 위한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집단, 16점에서 19점 사이는 대략적인 상담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집단, 20점 이상은 알코올의존에 대한 진단적인 평가를 넘어선 명확한 치료가 필요한 집단으로 구분한다.

2.2.2 우울

우울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을 사용하였다. CES-D 11은 Radloff(1977)의 개발 문항 20문항 중 11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다[16]. 지난 일주일간 심리상태를 측정한 것으로 4점 리커트 척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비교적 잘 지냈다', 문항과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는 두 문항을 역코딩하였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우울점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5인 것으로 나타났다.

2.2.3 가족관계

연구대상의 가족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가족관계는 가족생활, 배우자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로 구분되며, 가족생활은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불만족 1점, 매우만족이 7점으로 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음주문제 정도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가족관계가 노인의 음주문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결과 및 분석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1,916명(38.8%), 여자가 3,017명(61.2%)으로 여성노인의 비중이 더 크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2,663명(54.0%)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85세 미만인 1,928명(39.1%)이었으며, 85세 이상 노인인 342명으로 6.9%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으로 보면, 무학이 1,265명(25.6%)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졸업(중퇴포함)이 2,057명(41.7%), 중학교 722명(14.6%), 고등학교 608명(12.3%), 대학교 이상 281명(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 노인의 11.1%인 547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3.2 성별에 따른 음주문제 정도

<Table 1>은 남녀노인 간의 음주문제 정도의 차이를 교차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이다. 카이 제곱 값이 153.357로 $p < .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노인 4,933명 가운데 24.3%인 1,200명 정도가 문제음주를 나타냈고, 남녀노인 간의 음주문제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남성노인의 경우 간단 상담과 지속적 상담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의존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문제음주자의 비율도 낮고, 간단 상담과 같은 심각한 알코올의존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Table 1> Drinking problem by sex

	simple consultation	continued consultation	alcohol dependence	total
male	482 (56.7%)	115 (13.5%)	253 (29.8%)	850 (100%)
female	327 (93.4%)	12 (3.4%)	11 (3.1%)	350 (100%)
total	809 (67.4%)	127 (10.6%)	264 (22.0%)	1200 (100%)

3.3 우울, 가족관계 및 음주문제와의 관계

주요독립변수인 우울과 가족관계와 음주문제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울, 가족생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음주문제와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은 음주문제 AUDIT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생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음주문제와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음주문제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관계 중 형제·자매관계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with major

	depression	family life	spouse	children	brothers-sisters	AUDIT
depression	1					
family life	-.33**	1				
spouse	-.28**	.29**	1			
children	-.27**	.72**	.25**	1		
brothers-sisters	-.22**	.51**	.24**	.66**	1	
AUDIT	.10*	-.08**	.16**	-.12**	-.05	1
mean	17.19	4.91	2.91	5.13	4.91	15.4
standard deviation	5.47	1.30	2.61	1.39	1.74	6.02

*p<.05, **p<.01, ***p<.001

3.4 노인의 음주문제에 우울과 가족관계 요인의 영향요인 분석

노인의 음주문제에 우울과 가족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모형1은 통제변수들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이 모형은 16.7%의 설명력을 보였다. 통제변수 가운데 상대적 영향력이 큰 변수는 성별요인으로 나타났고, 남자인 경우 음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428$). 그리고 나이가 적을수록 ($\beta=-.092$),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beta=-.103$) 음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독립변수를 추가한 것으로, 통제변수의 회귀계수가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특히 성별요인은 전체 변수 중에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beta=-.421$). 독립변수 가운데 우울이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울할수록 음주문제도 심각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beta=.157$). 그리고 가족관계 변수들을 하위변수로 살펴보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는 자녀관계와의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관계에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음주문제의 위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17$).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drinking problem

		module 1			module 2		
		B	β	t	B	β	t
control variable	constant	31.316		13.142	30.465		11.724**
	age	-.099	-.092	-3.389**	-.114	-.106	-3.870**
	education	-.509	-.103	-3.502***	-.426	-.086	-2.951**
	basic supplement	.215	.010	.381	-1.200	-.057	-1.883
	sex	-5.673	-.428	-15.098***	-5.575	-.421	-13.381**
in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204	.157	5.302**
	family life				.059	.012	.313
	spouse				.076	.031	.933
	children				-.512	-.117	-2.730**
	brothers-sisters				.120	.034	.973
R ²		.409			.446		
Adjusted R ²		.167			.199		
R ² change					.032**		
F value		59.980***			32.774***		

*p<.05, **p<.01,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음주문제의 정도와 우울과 가족관계 요인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음주문제의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은 음주문제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경우 알코올의존에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음주 정도가 29.8%가 보고될 정도로 높았던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는 3.1%에 불과하여 남녀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여성노인의 경우는 간단한 상담을 요하는 문제음주 정도를 93.4%가 보였다. 이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간의 음주문제에 대한 실천적 접근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노인의 경우 정도의 음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기단계의 문제해결 접근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에 비해 남성노인은 간단한 상담, 지속적 상담, 알코올의존에 따라 문제를 보이고 있어서 단계별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음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과 음주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나이가 들수록 건강문제로 인해 음주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남성노인인 경우 음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성별간의 교차분석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 노인에 따라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방법이나 접근방법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음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셋째, 우울과 가족관계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울이 가족관계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개인의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문제도 심각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은 음주문제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어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음주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가족생활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보다는 자녀와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노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노인의 건강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박진영(2015)은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의 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신체적 건강상태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노인들의 음주문제 예방을 통한 인지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7]. 또한 권명진(2015)은 노인의 인지, 우울과 공격성의 관계 연구에서 노인의 부정적 감정상태가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고 했으며 이는 우울의 문제가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있음을 시사한다[18].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울요인과 가족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노인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 특히 사회환경적 요인들을 포함한 연구를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인 패널 자료의 한계점으로 인해, 가족관계 변수를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변수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관계와 객관적 가족구조를 동시에 포함하는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Myeong-Sook Yoon, Sung-Hye Kim, Wan-Soon Chae, "The Effects of Alcohol Use, Mental Health Factors on Seniors" Ideation of Suicid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p.27-44, 2010.
- [2] Jung-Don Kwon, Dong-Ki Kim, Ki-Soo Kim, Su-Jin Park, "Structural Relationship of Family Cohesion, Stress, Depression and Problem Drinking for the Elderl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okwon University.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3, No. 3, pp.3-25, 2012.
- [3] Chai-Young Yoo, "The Motivation for Change in Problem Drinkers -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readiness to change for seeking change strategie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p.11-13, 2000.

- [4] Hyun-Soo Gweon, "Effects of Problem Drinking of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Depression and Self-esteem : A Latent Means Analysis Application between Poor and Non-poor Elderly". Dept. of Welfare for the Elderly, Daegu Haany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 Vol. 29, No. 4, pp.1521-1538, 2009.
- [5] Yun-Ro Lee, "Alcoholism in the elderly", Koreans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10, No. 1, 2000.
- [6] Hee-Sook Seo, kyeong-Ae Song, "A study on Alcohol Consump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J.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6, No .1.PP.115-124, 2004.
- [7] Gung-Gi, Nam, "Korea Rural Elderly alcohol addiction epidemiological studies" Journal of Neuropsychiatric, Vol.28, No.6, pp.1082-1089, 1989.
- [8] Ji - Young, Park,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Alcoholics :Focusing on patients in psychiatric hospital",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1998.
- [9] Jung-Sun An, Hee-Kyung Kim, Eun-Sook Choi, "Factors Influencing the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of Adolescents",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4, No. 1, pp.55-65, 2003.
- [10] Jung-Don Kwon, Dong-Ki Kim, Ki-Su Kim, Su-Jin Kim, "Structural Relationship of Family Cohesion, Stress, Depression and Problem Drinking for the Elderly, J.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Vol. 23 No.3, pp.309-329, 2012.
- [11] Myeong-Sook Yoon, "The Study on the Relation of psychosocial Factors, Problem drinking on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Urban and Rural Areas", J. of Welfare for the elderly, Vol. 38, pp.41-64, 2007.
- [12] In-Sun Jang,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Alcohol Use Disorder in Elde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0, No. 2, pp.130-140, 2008.
- [13] Jae-Hong Park, Ji-Hong Cheong,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 A Medi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J. of Welfare for the aged, Vol. 47 No. 1, 2010.
- [14] Hyo-Jeong, Lee,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 problems of elderly men"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6.
- [15] Ok-Kyoung, Yang,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Aging",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1. pp.101-131. 1997.
- [16] Radloff, L.S.,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1, No. 3, pp. 385-401. 1997.
- [17] Jin-Kyoung Park, "Convergence factors among their physical state, function and activities influencing on the cognition of elderly residents in a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53-162, 2015.
- [18] Myoung-Jin Kwon,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ogni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71-176, 2015.

윤 숙 자(Yoon, Suk Ja)



- 1988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사)
- 1997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6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3월 ~ 2016년 2월 : 경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실천
- E-Mail : by-999@hanmail.net